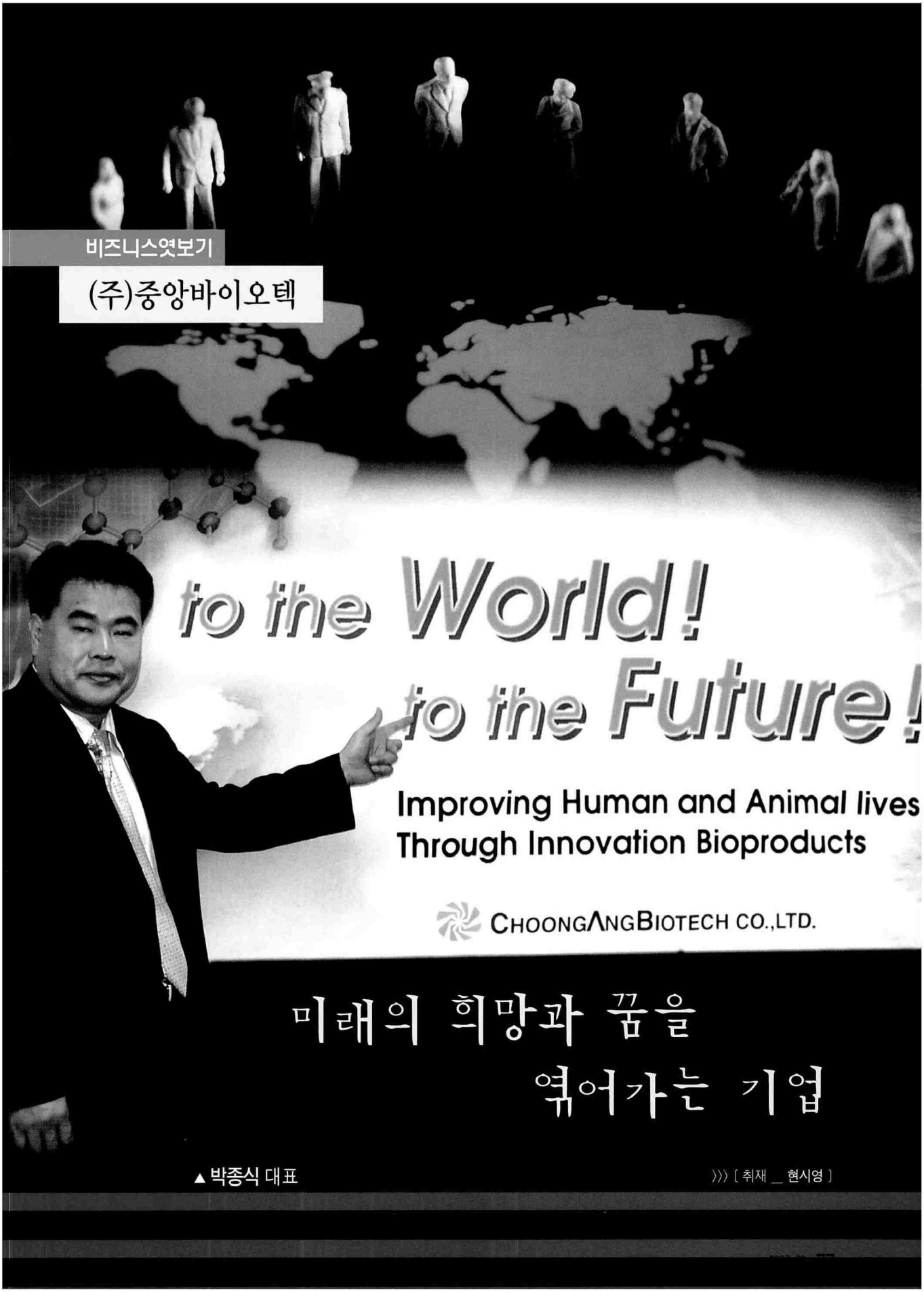
비즈니스엿보기

(주)중앙바이오텍



미래의 희망과 꿈을 엮어가는 기업

▲박종식 대표

〉〉〉〔취재 _ 현시영〕

▲ (주)중앙바이오텍 박종식 대표.

'최초'에서 '최고'로

중앙바이오텍의 연혁을 보면 유난히 '최초' 자가 들어가는 제품이 많다. '80 업계 최초 비타민(나이아신)생산 · 수출, '82 업계최초 비타민(토코페롤) 생산 · 수출, '86 국내 최초 항생제 대체물질 생산 · 수출.

이에 대해 박종식 대표는 1980년대 초에도 제품개발이나 기술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었던 때였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당시 타 업계에 비해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86년 항생제 대체제인 생균제 CYC 개발했던 것은 회사로서도 굉장히 큰 투자를 한 것입니다. 안산의 2공장은 생균제 전용공장으로 그 당시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현재도 국내에서 생균제 전용공장으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라고 말했다.

특히 CYC는 미지의 천연 항생제 대체제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어 국내외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때문에 95년에는 수출 500만불 수상탑을 받기도 할 만큼 잘나가던 때였다.

박종식 대표는 CYC와 퍼마졸은 해외 수출량이 국내에서 부동의 1위라고 말했다. 특히 퍼마졸의 경우 우리나라 종합영양제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며, 생산해 내기 상당히 어려운 기술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앙바이오텍만이 과립형의 종합영양제로 출시한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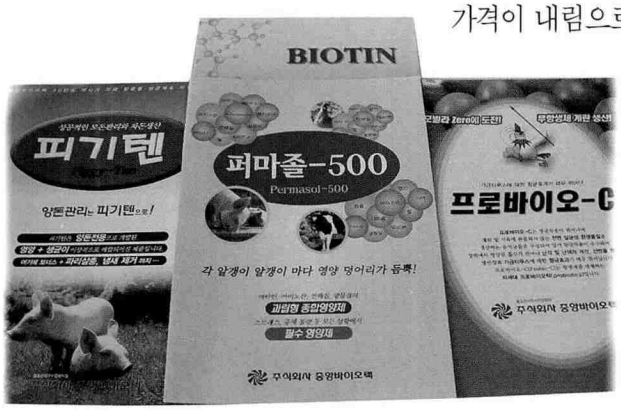
박 대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같이 급여할 경우 영양소가 파괴되는데 퍼마졸은 영양소 파괴를 방지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소개를 덧붙였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 짝퉁제품이 발견되어 홀로그램을 붙여서 공급했는데 그 홀로그램까지 똑같이 복제해 판매하고 있었다고 한다.

30년 일등공신은 도전과 모험

(주)중앙바이오텍은 여러 나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동남아 쪽 시장 수출 규모가 큰 편

이다.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제품과 비교해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선진국의 제품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종식 대표는 인터뷰 중 아픈 기억하나를 끄집어냈다. "IMF 이전에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대만 쪽에 수출하던 업체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또 중국시장이 성장해서 그 당시 동남아권 수출을 늘려가고 있을 때 시장을 많이 뺏기게 됐죠."라고 말하며 사실 작년부터 수출은 적자라 회사에서 고민이 많다는 솔직한 심경을 피력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박 대표는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2000년 코스닥에 상장된 후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가 D-Biotin의 개발이었다고 말했다. "D-Biotin은 특히 40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비,기술,자금이 많이 투여되어져 중소업체에서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을 저희 회사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일한 비타민이 바로 D-Biotin이었고, 세계시장의 30%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컸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만 보았던 사업이 되었다. (주)중앙바이오텍의 Biotin 생산계획을 알고 외국의 기업들이 일제히 Biotin의 가격을 폭락시켰던 것이다.

때문에 2005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안타깝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Biotin 가격이 내림으로써 국내 배합사료 생산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한 셈이 되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30여년을 이어온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또 한번의 도약

HI-PLA™ 하이플라

(주)중앙바이오텍은 지난달에 HI-PLA라는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전용공장을 지었다. HI-PLA는 출시 준비 중인 제품으로 세계최초로 돼지태반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로 특허를 받았다. 박 대표는 돼지에게 급여해 폐사율을 줄이고 초기 성장을 끝까지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태반을 이용한 동양 민간요법에서 제품개발에 착안한 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실험 데이터를 건네며 돈 태반은 천연적으로 유도된 여러 가지의 아미노산과 지방산, 미네랄 등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의 성장률과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가축의 수정율을 높이는 기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2~3년동안 신제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HI-PLA에 대한 기대를 살짝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태반에서 생산되는 고형분은 1년에 돼지1마리당 800g 밖에 나오지 않아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마케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앞으로 의약 · 건강사업부를 신설하여 건강한 삶을 통한 웰빙 사회를 선도할 것이며 줄기세포치료제와 DNA칩의 기술개발, 바이오신약 개발로 인류보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중앙바이오텍이 세계 Bio 시장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제1공장 전경

▲ 전경